

주교회의 2020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천주교인들을 위한 담화문을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전국 교구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사 재개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자들의 영신적 유익을 위하여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미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지침을 존중하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2020년 4월 6일(월)로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추어 교구장의 재량의 따라 구체적인 미사 재개 날짜를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의 추이에 따라 미사 재개에 필요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3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반포 5주년을 기념하는 「찬미받으소서」주간(2020년 5월 16-24일)을 맞이하여, 2020년 5월 8일(금)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기후위기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 16일(토)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찬미받으소서」 주간 강론 자료 및 주간 요일별 기도 자료를 배포하고, 환경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과 연설문을 모은 Nostra Madre Terra: Una lettura Cristiana della sfida dell'ambiente(우리 어머니인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찰)를 번역 출간할 계획이다.
- 4 기존의 「사회복지·사회사목국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회복지 업무가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회사목국장회의(2020년 1월 14일)에서는, 회의 명칭을 「사회사목국장회의」로 변경하고, 각 교구에서 사회사목(교정사목, 이주민사목, 경찰사목, 환경사목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대표 사제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 명칭을 「사회사목국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 5 주교회의 사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홍식 주교)의 제안에 따라,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하기로 하고, 희년 기간은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주일) -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주일 전날)로 정하였다. 희년 기간에 전대사를 받기 위하여 교황청 내사원에 전대사 수여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6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설립 50주년을 맞아 2020년 11월 3일(화) - 20일(금) 태국 방콕 대교구에서 개최되는 FABC 총회에 참석할 한국 대표로 7명의 주교를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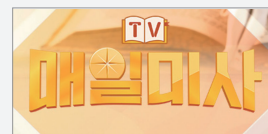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과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춘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5년 3월30일 이종순 요셉 신부(46세)
- 1982년 4월3일 양기섭 베드로 신부(77세)

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미사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방송시간>

TV	: 월-토 6시, 9시, 12시, 18시, 21시20분
	: 주 일 6시, 9시, 12시, 18시, 21시
라디오	: 매 일 5시, 18시5분
유튜브	: <TV매일미사> 검색

매일 5시 이후 cpbc 홈페이지·모바일앱·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미사 재개시 준비사항

- (1)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세정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역학조사를 위해 미사참석 명단을 작성합니다.
- (2) 미사 중에도 신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당 안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으며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 (3) 미사 중 성체를 나누어주기 전 주례사제가 제대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신자들이 함께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침묵 중에 성체분배를 합니다.
- (4) 성가책이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5) 가급적 성가를 부르지 않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 (6)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이 있는 신자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환자, 초·중·고등학생은 별도 공지 때까지 집에서 대송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합니다.
- (7) 금년 성지주일에는 성지가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8) 부활전 판공성사는 현상황에서 어려우므로 ‘일괄고백과 일괄사죄’를 위해 교구에서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